



이용규

“힘 잃은 방망이 활력 되찾자”

“팀 타선에 불을 지퍼라.”

갈 길 멀기만 한 KIA 타이거즈가 타선의 부조화로 힘든 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4강 진출을 위해 1승이 천금 같은 KIA지만 타선의 집중력에서 문제를 보이며 지난 20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24일까지 4연패를 기록했다.

4패를 하는 동안 팀 타율은 0.225에 그쳤고, 주자만 앞에 두면 타자들의 방망이가 불발이다. 짜임새 있는 타선 구축이 시급한 KIA의 운명은 소총부대와 대표부대의 대표 주자 이용규와 이재주의 어깨에 달렸다.

4패의 경기에서 이용규의 타율은 0.267, 3번 홈을 밟았고, 3차례 베이스를 훔쳤다. 지난 21일 두산에 4-7로 역전패를 당하던 날 이용규는 1회 선두타자로 나와 중전 안타를 터트린 뒤 도루로 2루까지 홈치며 상대 마운드를 흔들었다. 장성호의 안타로



KIA, 최근 4연패 허덕

주포 이재주·이용규

분위기 쇠신 선전 다짐

첫 득점을 올리면서 손쉽게 경기가 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사 2·3루에서 4번 타자로 나온 이재주가 삼진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이후 이현근의 병살타가 터지면서 KIA는 1점을 뺏는데 그쳤다.

4-4로 동점이던 8회 이용규는 우중간을 꿰뚫는 안타와 우익수의 실책을 곁들여 2루까지 진루했다. 테이블 세터 이용규는 과감하게 3루를 홈치면서 완벽하게 밥상을 차려놓았지만 후속타 불발로 홈을 밟지 못했다. ‘이용규 홀로 야구를 한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결국 8회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KIA는 9회 4-7로 역전 당했다.

그나마 팀 공격을 이끌던 이용규는 이날 역전패 이후 2경기에서 단 1차례 출루하는데 그치지 힘이 빠졌다. 중삼타자 이재주도 팀이 4패를 기록하는 동안 0.00의 타율 속에 희생플라이로 1타점을 올리는데 만족해 KIA는 이종고에 빠졌다.

이재주는 지난 5월 최희섭이 허리 통증으로 2군으로 내려간 틈을 타 중삼타자로 자리를 굳힌 뒤 8개의 홈런포로 소총부대 KIA 타선에 무게를 실어주며 맹활약했다. 하지만, 최근 허리 통증 속에 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용규는 24일 현재 팀 내 타율(0.317)·안타(84개)·도루(20개)부부 선두를 달리며 소총부대를 이끌고 있다. 이재주는 홈런(8개)·타점(35개) 팀 내 1위를 달리며 대표부대의 1인자다. 그만큼 두 선수가 팀 타선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팀 공격의 핵(核) 두 선수의 호흡에 따라 타선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팀 공격의 핵(核) 두 선수의 호흡에 따라 타선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이재주

올림픽 야구대표 1차 엔트리

KBO, 뒤늦게 숫자 채워 제출

베이징올림픽 야구 대표선수를 선발중인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그동안 공식 발표와 달리 대폭 수정된 1차 엔트리를 베이징 올림픽조직위원회(BOCOG)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대한야구협회(KBA)와 KBO에 따르면 이날 초 국제야구연맹(IBAF)의 요구에 따라 1차 엔트리 60명을 새로 작성해 지난 15일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통해 BOCOG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KBO는 지난 3월 예비 후보 명단 100여 명을 작성한 뒤 4월28일 2차 후보 66명, 5월26일 3차 후보 46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IBAF가 요구한 공식 1차 엔트리 60명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후보 선정 작업을 주도한 KBO 기술위와 올림픽 엔트리를 동떨어진 숫자를 발표한 것은 야구협회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탓에 IBAF의 국제대회 ‘기술/조직규범’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IBAF는 올림픽 참가국은 우선 1차 엔트리 60명을 제출한 뒤 이 중에서 최종 24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달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은 5월 말 일찌감치 60명을 제출한 뒤 언론에도 공개했지만 한국은 엉뚱한 숫자인 46명을 발표했다.

KBO 기술위는 1차 엔트리를 다시 60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3차 명단까지 포함했던 김병현을 제외하고 2차와 3차 후보에서는 없었던 이재주(두산), 성영훈(덕수고), 나주환(SK), 박석민(삼성), 이종범(KIA), 송지만(우리) 등 10명을 새로 포함시켰다. 해외파 중에서는 이승엽(요미우리)과 임창용(야쿠르트), 이병규(주니치), 추신수(플러블랜드) 등은 이름을 올렸지만 박찬호(LA 다저스)는 완전히 제외됐다.

미 프로야구 피츠버그

48년만에 양키스 꺾어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뉴욕 양키스에 반세기 만에 이겼다.

피츠버그는 25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벌어진 양키스와 인터리그 3연전 첫 경기에서 호세 바티스타와 라이언 두잇의 홈런포 2방 등 19안타를 폭발시키며 양키스 마운드를 유린한 끝에 12-5로 대승했다.

피츠버그가 양키스에 승리하기는 1960년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4승3패로 우승한 뒤 48년 만이다.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 간 인터리그가 메이저리그에 도입된 1997년 이후 피츠버그는 전날까지 30개 구단 중 양키스를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유일한 팀이었다. 2005년과 2007년 양키스와 3연전씩, 두 차례 양키스와 대적했지만 모두 패해 6패만을 안고 있었다.

“배구 올림픽 좌절 책임 장영달 회장 물러나라”

대한배구협 일부 대의원 성명

협회측 “배은망덕한 일” 반박

베이징올림픽 남녀 동반 탈락 처욕을 당한 배구계 내부에서 ‘장영달 회장 퇴진’ 주장이 제기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박승수 한국9인제배구연맹 회장 등 대한배구협회 대의원 6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장영달 회장 등 배구협회 집행부는 총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배구가 1964년 올림픽 정식종목이 된 이후 정치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본선 티켓을 획득하지 못한 건 이번

이 처음”이라며 “배구협회의 좌충우돌하는 행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승수 회장은 “대의원 8명이 모이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전체 대의원 25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며 “장 회장이 26일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27일 총회 소집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장 회장이 여당 의원일 때에는 ‘회장을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던 이들이 이야기가 바뀌고 장 회장이 18대 총선거에서 낙선했다고 해서 물러나라는 건 배은망덕한 일”이라며 “대안도 없이 회장을 쫓아내면 어느 유력인사가 경기단체장을 맡으려고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승전(11:00·KBS N SPORTS)

▲제 5회 확산김성룡배 전국장사씨름대회(14:00·KBS N SPORTS)

▲2008 프로야구(KIA:한화)(18:00·KBS N SPORTS), <우리:두산>(18:20·MBC ESPN), <SK:롯데>(18:10·SBS 스포츠), <LG:삼성>(18:20·XSPORTS)



‘투르 드 코리아’ 힘찬 질주

국제 도로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자팬(Tour de Korea-Japan)’의 국내 첫 경기가 25일 부산에서 시작돼 부산경관장이 위치한 스포월드파크에서 선수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 국내 경기는 창원, 여수, 강진, 거창, 구미, 단양, 양양, 춘천을 거쳐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연남뉴스



26일 (목)

▲실업양궁 연맹전(14:10·KBS1)

▲제 9회 전국대학 축구대회 청룡그룹 결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제일종합상사 북구 양산동 신흥택시 건너 각종도어,복합도어,비디오,인터폰,전기조명 대표 황인철 ☎(062)572-4141	동광주목재산업 북구 각화동 동광주 IC사거리 문물전문,맞춤목재,실내장식,인테리어 대표 정병훈 ☎(062)262-1424	빛고을홍어마당 북구 두암동 농협거리 두암우체국 옆 홍어찜,홍어무침,홍어사시미,삼합,홍어탕 연포탕,보쌈,매생이국,굴비백반,굴비정식 ☎(062)261-0001	59년왕심리막창구이 서구 광천동 광천우체국 옆 막창구이,곱창전골,곱창국밥 대표 최해경 ☎(062)367-1137	금풍다방 북구 동명동 서방시장거리 금풍명동 지하 각종커피,과일주스,이른한식휴식공간 대표 김정순 ☎(062)524-5417	맛을찾는사람들 광산구 월곡동 그린한방병원 옆 보양탕,추어탕,오징어불고기 전문 대표 안미영 ☎(062)956-8020	한솔영양돌출밥 광산구월계동 무등교회 옆 영양돌출밥 전문 대표 강성천 ☎(062)973-7607
해뜨는집 북구 용두동 광주은행사거리 성실하고 깨끗한 분위기의 식당 ☎(062)571-5598	한솔의원 쌍촌동 효광여중입구맞은편 기정의학과,내과,물리치료 전문전문의원 대표 이춘익 ☎(062)385-8838	플로렌스 서구 화정동 우미@전문양 헤어관리,이모티오,동경락,복부경락 체험관리,화해@할인 북부경락,발링@화무로 ☎(062)352-2121	(주)선암건설 북구 두암동 청어천선 맞은편 반실골의원 옆 토목,건축업 전문업체 대표 정희공 ☎(062)236-1307	중봉종합인테리어 북구 두암동 문화초등학교후문 맞은편 샷수,조리식주먹,축사,철골,가죽모티터어 대표 임종배 ☎(010)9175-2114	화산회관 광산구 월계동 신흥연 매운갈비찜 뽕요삼겹살전문 대표 김두하 ☎(062)971-0121	풍천장어전복 광산구 월계동 부영사우나 건너편 장어·전복전문 단체손님환영 대표 한동석 ☎(062)974-2822
동부한식뷔페 북구 중흥동 동부시장 동부미트 앞 뷔페2,500원 학생식권2,200원 ☎(062)261-4043	(주)비데프라자 북구 동림동 동림지구 동림병원 맞은편 남.여 영업관리사원모집노비타 비데기렌탈 및 할인판매전문점 ☎(062)515-1144	자연산할어전문“대가” 서구 풍암동 오리초등학교 정문 앞 직장인을 위한 점심특선 자연산(하모탕,회진물회)5,000원 ☎(062)375-3388	고운의원 광산구 운남동 금구초등학교옆2층 비노기과,피부과,진단방사선과,물리치료 직장인검진,암검진,채용검진 ☎(062)951-9011	고향부페 북구 오치동 미래이동병원옆우회100m 연화정원비 화과,돌 각종모임출장뷔페전문 대표 김용술 ☎(062)263-1500	여수아나고 광산구 월계동 승덕고 월계교회뒤막자골목 분장어이전문 자연산100% 대표 김영철 ☎(062)973-2510	기아자동차호남대리점 광산구 신가동 신가병원 맞은편 신입·경력사원수시모집 차량관련 모든사항을 해결드립니다! ☎(062)954-1800-2